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1. 25.(화) 14:30	배포 일시	2022. 1. 25.(화) 14:00
담당 부서	장기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	책임자	과 장 김현익 (044-215-4940)
		담당자	서기관 최형석 (hyungchoi@korea.kr)

기후대응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최

- 민간위원 위촉 및 2022년 기금 운영방향 논의 -

- 이억원 1차관은 1월 25일(화) 14:00,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신설 운영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함

* 참석자: 기재부 1차관 주재, 정부위원(4인: 기재·산업·환경·국토부), 민간위원(5인)

- 금번 심의회에는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기금 신설에 따라 최초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,

- 회의에 앞서 5명의 신규 민간위원*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음 (위원명 가나다순)

*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
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
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
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ESG 연구센터장
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-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등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「탄소중립기본법*」에 의거하여 금년 1.1일부로 신설하였음

* '21.8.31일 국회통과 → '22.3.25일 시행 예정 (단, 기금의 경우 '22.1.1일 시행)

< 기후대응기금 신설 기대효과 >

- ① (효율성 제고)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·분절적으로 수행하던 기후대응 사업들을 단일의 기금을 통해 총괄 검토·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 방지 및 시너지와 효율성 제고
- ② (정책과의 정합성 제고) '2050 탄소중립' 정책추진 및 거시·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·고려한 재정사업 구성 및 집행이 가능
- ③ (탄소중립 관련 정책의지 표출)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기금 신설을 통해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

□ '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.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
①온실가스 감축, ②신유망·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, ③공정한 전환,
④제도·기반구축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지원할 예정

○ 구체적으로, ①탄소저감 설비전환 지원, 도시·국토 저탄소화 및 탄소
흡수원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 0.9조원

*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(환경부, 1,220억원),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(국토부, 2,245억원),
산림탄소흡수원복원(산림청, 79억원) 등

○ ②신유망·저탄소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고, 탄소중립 관련인력 육성
및 녹색금융 지원에 총 0.6조원

*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(환경부, 442억원), 산업은행출자(녹색금융)(금융위, 1,300억원) 등

○ ③취약산업·고용·지역 등 공정한 전환 총 0.2조원, ④탄소중립 R&D
지원 및 핵심 제도·기반구축에 총 0.6조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임

*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(환경부, 328억원),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(산업부, 869억원)
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(R&D)(과기부, 473억원), 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(환경부, 172억원) 등

□ 이억원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,

○ “작년 한해 정부가 ‘2030 NDC’, ‘탄소중립 시나리오’를 마련하는 등
‘2050 탄소중립’ 목표를 향한 의미있는 첫걸음”을 내딛은 데 이어,

○ “금년은 ‘2050 탄소중립’ 목표이행 원년으로써, ‘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
계획’을 비롯, 구체적인 분야별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”라고 하면서,

○ “특히,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기후대응
기금을 신설하였으며,

-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동 기금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
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·발전시켜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힘